

제1기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종강식 총평

사랑하는 기후환경리더 제1기 대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난 3개월 동안 기후환경리더로서 활동해온 걸 봤는데, 정말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다는 의미로 서로 박수 한 번씩 쳐주시기 바랍니다.

【 소 감 】

지난 개강식 때 여러분과 처음 만났던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종강식이라니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개강식 때 여러분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젊을 때 했던 고민들을 털어놓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젊을 때의 제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기후위기에 맞서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한 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었고 조금이라고 더 응원 해주고 싶었습니다.

개강식 때 제가 걸어가고 있는 길을 “외로운 투쟁” 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

데 이제는 더 이상 외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는 150명의 기후환경리더가 있어서 든든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해가 지날수록 얼마나 많은 기후환경리더들이 저와 함께 ‘기후동지’의 인연을 맺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우리가 함께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어느 시대든 영감, 즉 ‘inspiration’을 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주도해 갑니다.

기후환경리더가 아직은 소수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변화의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간다는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번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정의롭고 도전적이며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UN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각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글로벌 리더들에게 파리기후협약 채택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남극과 북극을 포함한 5대양 6대주를 누볐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파리기후협약의 달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세대가 등장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감동과 보람이 느껴 집니다.

여기 모인 기후환경리더들은, 제가 미래세대를 위해 했던 노력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저를 대신하여 청년들에게 전파하고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미래세대가 스스로를 틀에 가두지 않고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잠재력에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 총 평 】

여러분은 본 과정의 아카데미, 친환경 실천, 그리고 토론 활동을 통해 Net-Zero를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체험적으로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대에서는 아직 토론 문화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세 차례에 걸친 Net-Zero 제안 토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소식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과정을 통해 지식과 공감을 넘어 직접 배운 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체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후환경리더 10명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Net-Zero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Net-Zero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제안까지, 대한민국의 Net-Zero를 위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편의상 등수를 매기기는 했지만, 기후환경리더 150명이 제출한 제안 모두가 대상을 받아도 결코 모자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Net-Zero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니 지금의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에 맞설 마지막 세대라는 말이 마음에 크게 와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낸 이 소중한 제안이 이 자리에서의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 기후위기 】

이번 달에 폭우로 인해 우리나라에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는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수도가 손 쓸 겨를도 없이 침수되고 도로가 마비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럽과 중국 등에서는 수백년만의 폭염과 가뭄으로 강줄기가 마르고, 그 바닥에서 뜻하지 않은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를 줄이고, 기후정상화의 비상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도 그리 많은 시간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IPCC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2040년에 인류 희망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대응은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대다수 국가의 Net-Zero 달성 목표는 2050년이며, 지구온난화에 누구보다도 책임이 큰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는 2060년, 인도는 2070년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사태의 치명적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화석연료를 포기하는데 지극히 미온적이기도 합니다.

작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Conference of Parties 26)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못박지 못하고 ‘금세기 중반’이라는 어정쩡한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석탄 발전과 화석 연료에 대한 보조금도 폐지가 아니라 단계적 감축으로 물러섰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비관적인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는 11월,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되는 ‘COP27’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기후행동을 대폭적으로 상향하는 합의들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 당 부 】

그래서 저는 대학생 여러분이, 변화의 주체, 해답의 주체가 되어주길 희망합니다.

그 어떠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여러분의 순수한 열정과 행동력은 세상을 움직이게 할 힘이 있습니다.

본 양성과정을 수료한 여러분 모두는 이제 단순히 “환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아닌, 이 상황을 극복해나갈 “기후환경리더”입니다.

오늘 수료한 ‘기후환경리더’ 라는 명칭이 여러분의 모든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여기 모인 대학생들은 이제 기후환경 리더로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알리고 친구, 후배들이 기후운동에 동참케 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자신의 속한 대학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촉구하고 기업과 정부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리더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기후환경리더가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겠습니까?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마지막 과제입니다.

답을 찾고 실행하여 영향력있는 기후환경리더가 되십시오.

IPCC가 1.5°C 상승을 경고한 2040년이 되었을 때 제1기 기후환경리더는 무엇을 이루었는지 미래 세대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으며, 우리의 활동은 Net-Zero 목표달성과 1.5°C 상승 억제에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저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여러분의 여정에 발걸음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